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7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60(남) 모임

오늘(6/30) 2부 예배 후(12:30pm)에 60(남)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초등부실, 안건-조직구성 및 행사계획. 문의-황흥섭 권사

• 성경암송 세미나

금주 수요일(7/3)부터 24일까지 4주간, 수요일 여름특강으로 <성경암송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성경암송의 의미와 유익,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시19:10)고 노래한 시인처럼 말씀 암송의 체험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참가신청서에 사인해 주시기 바라며, 참가신청자에 한해 이번에 특별히 제작된 <R.E.C.I.T.E> '성경암송 책자'를 드립니다.

• 정기임원회

7/7(주일) 1부 2부 예배 직후, 2024년 정기임원회가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각 구역부와 위원회에서는 보고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목회보고, 구역보고, 전반기(1월-6월)재정보고/감사보고 등

• JAMA Leadership Conference

7/1(월)-5(금), 유스그룹 고등부 멤버 10명이 달라스에서 열리는 JAMA Leadership Conference에 참석합니다. 주 안에서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Jama Global Campus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유아유치부 VBS]

*일정: 7월 26일(금) ~ 28일(일)

*주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요1:3)

[초등부 VBS]

*일정: 7월 26일(금) ~ 28일(일)

*주제: Escape the Egypt!!! (Deut 5:15)

[중고등부]

*GMC Youth Retreat (7/15-18): St.Simon Island, GA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Youth (중고등부) 안내

JAMA Leadership Conference (7/1-5): Texas

GMC Youth Retreat (7/15-18): St.Simon Island, GA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9,374.00

일반헌금 \$9,054.00	십일조: \$4,034.00 주일: \$860.00	남플사랑: \$600.00 감사: \$1,290.00	기타: \$2,270.00
건축헌금 \$30.00	약 정: \$30.00		
선교헌금 \$290.00	속 화: \$240.00	중남미: \$5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3권 26호
2024년 6월 30일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43장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9번 많은 사람들,
내게 강 같은 평화,
십자가,
많은 이들을 말하고
- ▲ 영광송 Gloria / 3장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 456장 (통509)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Have you failed in you plan)

기도 Prayer / 이경천 집사

기도 Prayer/ 김세희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자 -

-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자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창세기(Genesis) 35:1-5

< 일어나 벰엘로 올라가자 >

Let us go up to Bethel!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파송찬송 Closing Hymn/ 432장 (통46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With Christ as my Pilot)

▲ 축도 Benediction/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6월/7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6월 30일	1부	은혜교구	담당자	이경천집사	은혜교구
	2부			김세희권사	
다음주 7월 7일	1부	충성교구	담당자	홍순희권사	충성교구
	2부			조필환장로	

금주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요14:27)
*인용성구/ 삼상23:4 삼상2:3 잠26:14,15

남플 여름 특강

성경암송 세미나

*일정: 7/3(수)-24(수)까지 매주 수요일 7:30

이번 여름 특강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암송의 의미와 유익,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시119:10)고

노래한 시인처럼 말씀 암송의 체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주제별 성경암송카드를 제공하오니,

세미나 참가 신청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6월 30일)		다음주 (7월 7일)
			김신혜, 김학섭목사
			결혼기념감사
	은혜교구		충성교구

우리말에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일찌감치 단념하고 분수에 넘치는 일은 생각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며 보다 실현가능한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민주적 사고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만큼 발전된 것은 '그 나무'에 오르는 꿈을 꾸 이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수1:1-2).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수종하는 자리에 익숙해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는 "못 오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자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수1:5)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곤 했는데, 이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 묻는 의식이었습니다. 한편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전쟁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고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갔는데, 이렇게 '미래적 약속'을 '현재적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지만 하면 그들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사후, 두려움과 중압감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수1:6).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줄 것이라는 미래적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래적 약속'을 그가 '현재적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 당신의 일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 그 자신이 받은 '미래적 약속'을 '현재적 믿음'으로 증명하려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수1:3-4).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못 오를 나무'와 상반되는 속담입니다. 변변한 교통신단 이 없어 도보가 일상이면 때, 천리 길은 그야말로 나서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건 '못 오를 나무'와 같은 의미였을 텐데,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못 오를 나무'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천리 길이라도 일단 나서면 다다르게 된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는 말씀을 단지 만사형통의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 비전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그들이 먼저 일어나 그 땅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간절할 만큼 우리 맘을 감동시키는데 그걸 시각화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마음에 그려진 비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못 오를 나무' 같이 비현실적인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께 그 인생의 운전대를 맡긴 사람에게는 '천리 길'을 향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현)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은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은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기즈스탄-임다윗)